

안철수 “악착같이 전북의 미래 열 것”

국민의당, 전북도의회에서 최고회의 열어... 회의 전 안 대표 지지측·반대측 신경전 벌여

국민의당은 11일 오전 전북도의회 세미 나실에서 제40차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예산 정국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호남을 찾았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각오였지만 쉽지 않은 것이 보인다. 이날 회의 전에도 전북지역 당원들 가운

데 안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전북도의회 로비에서 무리를 지어 신경전을 벌였다. 최고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전북 발전은 단지 전북도민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동남축을 혁신하고, 서남축을 개발해야 서해안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의당은 누가 뭐래도 악착같이 전북의 미래를

열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중희 전북도당위원장은 안철수 당 대표의 방문에 대해 “전라북도의 민심, 현황, 앞으로 당이 나아갈 분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밑거름을 삼아가고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삼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데 이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전북경제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 또 정부의 다각적인 재가동을 위한 노력, 현대중공업의 진심어린 결단 등 세 박자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사진)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 ‘기자단’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올해로 16 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사 염려 이해... 지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care) 관련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강조했다.

이날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연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환자당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아크부대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각) 중동지역 파견부대의 모범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김기정 부대장과 장병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백경태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 홍보 강화 요청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최영일, 재해예방시설물 체계적 정비 강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에 의해 미진 실·국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백경태 위원(무주)은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과 관련,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신문고운영에 대한 도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안전신문고 운영방법, 신고절차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더불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하병커시탈 등 비상대비 시설 확충 및 대피요령 교육 등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재해예방시설물 정비’ 사업과 관련 지방하천의 교량, 취입보 등 시군의 재해위험시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며 단발성 정비에만 그치지 말고 도내 위험시설 일체 점검을 통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새만금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확대된 것과 관련, 새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을 중심으로 한 관련 새만금 SOC사업 및 투자유치 등에 집중 투자해야 힘을 강조하면서 개발 사업에 취중해야 할 시기에 민간단체 지원이 확대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민중당 비례대표)은 지역의료원의 과잉인력 인건비 지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며 남원, 군산의료원의 인력문제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섭 “근로시간 단축, 임시국회서 꼭 통과시켜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어렵더라도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정책 성공 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예산과 법률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약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져서 행정해석으로(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외(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지난날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견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뉴시스

김영란법 가액 3·10·5개정안 권익위 통과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겨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기로 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교육이
해결하는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호주주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병은 25일 5월,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